

다문화적 관점에서 본 <임화정연>에 나타난 '시비 석가월'의 인물 시론*

양민정**

— <차 례> —

1. 머리말
2. 다문화적 관점과 가문소설의 연구 의의
3. <임화정연>에 나타난 '석가월'의 타자적 특성과 의미
 - 3.1. 시비 석가월을 중심으로 한 순차적 서사 대단락
 - 3.2. 시비 석가월의 타자적 특성과 의미
4. <임화정연>의 '석가월'을 통해 본 다문화적 면모 및 가문소설 구성에 끼친 영향
 - 4.1. '석가월'을 통해 본 다문화적 면모 :소통과 통합
 - 4.2. 다문화적 면모가 가문소설 <임화정연>의 구성에 끼친 영향
5. 맺음말

<국문초록>

<임화정연> 즉 <사성기봉>소설은 조선조 양반가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가문소설이다. 본고는 <임화정연>에서 작품을 관류하면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하는 시비 '석가월'의 정체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작금의 다문화 사회에 상응하여 조선조 고전소설 속의 인물을 바라보는 연구 시각과 방법도 전환, 확장될 필요가 있다. 주로 정주자적, 주류적 인물 중심에서 비주류, 주변적, 타자적 존재에 대한 관심의 확대가 요구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시의적 주제의식을 갖고 가문소설 <임화정연>에 나타난 '시비 석가월'의 인물에 관한 시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다문화적 관점에서의 가

* 본 논문은 2018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된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과 교수

문소설 연구 의의를 살펴보고, 둘째, 타자적 중심인물로 보여진 시비 석가월의 타자적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셋째, <임화정연>에서 ‘석가월’을 통해 본 다문화적 면모 및 다문화적 면모가 가문소설의 형성에 어떤 구성요소로 작용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석가월의 일련의 서사적 행위는, 타자적 인물이 주류적, 중심적 존재로 구성화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주류적, 중심적 가문 구성원들의 소통과 통합을 이루어 냈다. 타자적, 주변적 존재로서 중심 구성원들의 소통과 통합의 정점을 일구어낸 석가월은 다문화적 면모를 지닌 인물의 한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의가 크다.

본고는, <임화정연>이 다문화적 관점에서 처음 시도되었다는 점과, ‘석가월’에 대한 인물 연구가 기존의 단편적, 부분적, 소략한 비중이었던 데 반해, 시론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본격 논의된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 <임화정연>, 다문화적 면모, 타자적 인물, 시비 석가월, 소통과 통합

1. 머리말

<임화정연> 즉 <사성기봉>소설은 조선조 양반가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전형적인 장편 가문소설이다. 본고는 <임화정연>에서 작품을 관류 하면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하는 시비 석가월의 정체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기존 연구들에서 시비 석가월에 대해서는 인물론적 특성이 논의된 바 있으나,¹⁾ 논의의 비중이 대부분 단편적이고 소략하고 부분적이었다. 작금의 다문화 사회에 상응하여 조선조 고전소설 속의 인물을 바라보는 연구 시각과 방법도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주로 정주자적, 주류적 인물 중심에서 비주류, 주변적, 타자적 존재에 대한 관심의 확대로 전향될 필요와 의의가 제기되었다. 다문화 개념에는 타자, 비주류, 주변성 등의 개념이 포

1) 양민정은 ‘막후인물’로(약 40여 년 전 당시에는 다문화의 개념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었던 시기였음), 한길연은 ‘여성영웅인물’로 규정한 바 있다.

함되지만 본고에서는 그 역순인 '타자는 다문화이다'라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도 '다문화'라는 용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 사용하고자 한다. 다문화적 시각에는 주류문화의 인물, 가정을 중심으로 하면서 주변적 인물들의 다양한 정체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그 상호간 경계선을 중심기준점으로 하고자 하는 융합적 개념이 담겨 있다.²⁾ 또한 다문화적 관점에서 한 예로 재외동포는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때, 구성원 간 관계 속의 다리 역할도 다문화적 요소로 볼 수 있다.³⁾

본고는 이러한 시의적 주제의식을 갖고 가문소설 <임화정연>에서 타자적 중심인물로 보여진 시비 석가월의 역할과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시비 석가월의 일련의 서사적 행위는, 타자적 인물이 주류적, 중심적 존재로 구심화되면서 궁극적으로는 가문 구성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내고 있다. 다문화주의의 기조가 '사회통합'⁴⁾인바, 그 소통과 통합의 정점에 선 석가월의 역할과 의미 속에는 이런 맥락에서 다문화적 면모를 지닌 인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이러한 다문화적 면모들은 조선조 후기 증폭적으로 양산된 장편 가문소설의 형성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 고전소설을 다문화적 관점으로 연구한 업적은 많지 않다. 비교적 초기 한문소설인 <육미당기>⁵⁾, 초기 국문소설 <홍길동전>⁶⁾, 초기 장편소설 <구운몽>⁷⁾, 삼대록 가문소설 <유씨삼대록>⁸⁾ 등의 작품을 다문화

2) 패멀라 A. 헤이스 지음, 방기연 옮김, 『문화적 다양성과 소통하기』, 한울, 2010, 99쪽.

3) 이현정, 『미래의 우리를 만드는 다문화 교안』, 이담, 2011, 290쪽.

4) 신순식 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공동체, 2010, 13쪽.

5) 정선희, 『소설 태자의 이방 체험으로 본 <육미당기>』, 『한국고전연구』 2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6) 김경미, 『타자의 서사, — 타자화의 서사, <홍길동전>』,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1.

적 시각으로 연구한 업적들이 소수 있긴 하다, 다문화적 인물의 개념에는 외국인, 이방인 등의 국적의 타자가 중심이지만 <홍길동전>의 홍길동⁹⁾처럼 신분적인 비주류, 주변적 타자 인물의 주체화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의 개념에는 이방인, 타자, 주변자, 비주류자 등이 내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관계의 구성 속에 다양성과 지속성도 포함되어 있다.¹⁰⁾ 비록 석가월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이거나 이주민 여성은 아닐지라도 석가월의 일련의 서사적 행위에는 이러한 타자성, 경계선적 정체성, 다양성과 지속성, 연결 통로(다리) 역할 등등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 석가월은 다문화적 개념의 한 인물의 형상화로 볼 수 있는 충분한 단서가 된다고 본다. 또한 다문화의 개념에는 ‘차이’와 ‘다름’의 명료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차이가 나와 저의 다름을 특징짓는 대립함으로써가 아니라, 각자 서로 다름이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형성되어온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¹¹⁾한다고 볼 때, <임화정연>에서의 석가월의 인물형은 ‘차이와 다름’의 경계를 잘 보여줌으로써 정체성 확립 과정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특성적 요소들도 석가월의 다문화적 면모를 적시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신분상으로는 주변인물, 비주류, 타자적 인물이면서도 네가문 남녀 주인공들의 현실적, 정신적 중심 존재로 주류적 중심점을 획득

7) 양민정, 『다문화적 관점에서 <구운몽>을 통해 본 소통과 화합 방식』, 『외국문학연구』 61, 한국외국어대 외국문학연구소, 2016.

8) 최수현, 『<유씨삼대록> 속 이민족 형성의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2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9) 김경미(2011), 위의 논문.

10) Bron B. Ingoldsby, Suzanna D. Smith 지음, 천혜정, 강진경 외 옮김, 『다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의 가족』, 시그마프레스, 2009, 5쪽.

11) 권순희, 박상준 외,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교육과학사, 2010, 71쪽.

하게 되는 시비 석가월이라는 인물¹²⁾을 탐구하고자 한다. 태생은 양민이나 부친에 의해 팔려와 상류층 소저의 시비가 된 석가월이라는 인물이 실제로는 임.화.정.연 네 남녀 주인공 및 주변인물들에 의해 정신적 주체로 인정되고 있으며 작품 말미에는 도관에 거하는 도사가 되어 탈속적 존재로서도 추앙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작금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문화적 관점과 가문소설의 연구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임화정연>에 나타난 타자적 인물의 특성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는바, 시비 석가월의 서사적 행위를 순차적 대단락별로 살피고, 그를 바탕으로 석가월의 타자적 역할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타자적 인물 석가월에 형상화된 다문화적 면모를 살펴보고자 하며, 나아가 다문화적 면모가 <임화정연>의 가문소설 형성에 어떤 구성원리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는, <임화정연>을 다문화적 관점에서 시도해 보았다는 점과, '석가월'에 대한 인물 연구가 기존의 단편적, 부분적, 소략한 비중이었던 데 비해, 구체적으로 처음 본격 논의된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크다고 본다. <임화정연>을 중심인물이 아닌 주변인물을 통해 '소통과 통합'의 관점에서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 점은, 가문소설에 대한 연구사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기대된다.

<임화정연>은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서 작자. 연대는 미상이다. <임화정연>은 '제일기언'의 서문에 등장하는 점¹³⁾에 미루어 19세기 초 이전에

12) 물론 석가월은 태생적 시비 신분은 아니었다. 정승상의 표현에 의지하면 '광동지방 양반의 부친이 두 딸을 팔아서' 그 중 한 명을 정소저의 몸종으로 데려왔다 하고 있다. 양반이라는 확신도 없으며 양반이었던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다. 아마 양반보다는 양민이었을 듯싶다. 김동욱도 이에 '양민'으로 규정하고 있다.(김동욱, 「<임화정연>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6, 129쪽.)

13) 정구복, 「'제일기언'에 대하여」, 『중국학논총』 1, 1984, 79-80쪽.

등장하여 조선조 말기에 집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가문소설(대하소설, 기봉류소설 등)의 출현과 그 시대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의 연구 텍스트는 1923년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발간한 6권6책 97회 장회체로 구성된 활자본¹⁴⁾을 중심으로 한다. <임화정연>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읽힌 작품으로 보이며, <남하명문록><남화정연><화정연록><사성기봉><임씨정연삼문취록> 등의 다양한 제목의 이본들로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사성기봉>의 표제에서도 시사하듯이 전형적인 ‘네 가문(四姓)’ + ‘기봉류’¹⁵⁾소설의 한 전형을 이루고 있다. 2004년에 총 72권 72책 필사본 <임화정연기봉>이 발견되었다.¹⁶⁾

2. 다문화적 관점과 가문소설의 연구 의의

최근 다문화 시대라는 시의적 관점에 입각해서 <임화정연>의 석가월은 새로운 면모로 해석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살펴본 바, 석가월에 관한 연구는 보편적 인물론 수준이었다. <구운몽>에 대해서도 그간 이상소설, 몽자류소설, 영웅소설, 애정소설 등 전형적인 양반소설 중심으로만 연구되었으나, 근래에 다문화적 시각으로 접근한 연구¹⁷⁾도 나왔듯이, 다문화 사회 도래 후 고전소설, 그 중에서도 가문소설에 대한 시의적 관점의 연구도 중요하고 참신한 주제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14) 『임화정연』(상)(하), 아세아문화사 영인. 1923. 이하 본문 인용은 본서에 의한다.

15) 양민정, 『기봉류소설 연구』, 이회문화사, 1989.

16) 2004년 72권 72책 필사본 <임화정연기봉>이 학계에 소개되었다.(송성욱, 필사본 <임화정연> 72책본 텍스트 연구 -구활자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6, 서울대 규장각, 2004.

17) 양민정, 「다문화적 관점에서 <구운몽>을 통해 본 소통과 화합 방식」, 『외국문학연구』 61, 한국외국어대 외국문학연구소, 2016.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임화정연>에 대해서는 탁월한 연구업적들이 축적되어 있다.¹⁸⁾ 그럼에도 가문소설, 대하소설, 국문 장편소설, 기봉류소설 등으로도 제명될 수 있는 <임화정연>¹⁹⁾에 대해 이러한 시의적, 타자적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간 가문소설의 형성 요인은 주로 조선조 사회 양반가문의 남녀 주인공들 중심의 결연담, 출세담, 자손 및 가문 번성담, 다처첩담, 구성원 간 갈등담 등등이 중심이었다. 이러한 보수적, 전통적 관점에서 그 시각을 외부적 요소로 확대시키고 그 중심 인물 또한 타자적 비주류적 인물의 특성과 의미에 주목하면서 가문소설 형성에 영향을 끼친 다른 한 축의 다문화적 면모에 대해서도 조명해 보고자 한다. 가문소설 <임화정연>에서 타자적 인물의 특성이 다문화적 면모를 담지한 선구적 작품이라는 소설사적 의의도 있다고 본다.

<임화정연>이 생산된 18세기 후반 조선조 사회에서의 석가월은 고전

-
- 18) 김동욱, 『<임화정연>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6.
 김지연, 『<임화정연>의 서사전략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9.
 송성욱, 『<임화정연> 연작 연구』, 『고전문학연구』 10, 한국고전문학회, 1995.
 송성욱, 『필사본 <임화정연> 72책본 텍스트 연구 - 구활자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6, 서울대 규장각, 2004.
 양민정, 『<임화정연>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0.
 엄기주, 『<임화정연> 연작 연구』, 『국어국문학』 116, 1996.
 정종대, 『<임화정연>과 가족주의의 확장』, 『국어교육』 92, 한국어교육학회, 1996.
 조광국, 『<임화정연>에 나타난 가문연대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조광국, 『다중결연구조의 양상과 의미』,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2006.
 한길연, 『탈속 공간을 지향하는 여성영웅들에 관한 소고 - <화정선행록>의 '충효해와 <임화정연>의 '석가월'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7, 국문학회, 2002.
 허순우, 『<임화정연> 소재 '첩 관련 서사'의 양상과 의미』, 『어문논집』 67, 민족어문학회, 2013.
- 19) 혼사장애소설, 가문소설, 기봉류소설, 다중결연담 등등으로 유형화되고 있다.

소설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외국인 다문화 인물과는 변별된다. 변방 출생과 하류층 신분의 타자적 존재감을 극복하며 중심 구성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내는 그 역할은 타자적 역할 그 이상의 확장된 개념의 다문화적 인물의 등가로도 자리매김될 수 있다. 석가월은 타자적 존재이면서도 다문화적 면모도 아울러 지닌, 당대의 선구적 존재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조선조 시대에 잠복된 다문화적 인물의 한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인물론적 의의가 크다. 한편 양반가문의 구성원이 아니면서도 양반가문의 남녀 주인공들을 소통과 화합의 구심점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가문소설 형성에 한 축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한국 가문소설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양반계급, 양반의식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러 가문이 남녀 주인공 숫자를 늘리고 결연 양상을 늘리고 가정사들의 사건을 확대하고 복수 남주인공들의 장원급제와 벼슬 진출, 자녀 번성, 가문 번창 등으로 가문소설의 장편화를 가능하게 했다. 시비 등 주변적 하층적 인물은 자기가 모시는 상전 한 명에게만 국한되어 그에 합당한 충성과 헌신을 바칠 뿐이었다. 그들은 단역일 뿐이고 삽화적 비중일 뿐이었다. 여타 주인공들의 관심이나 칭찬, 연대의식, 포용감 등은 나타나지 않았고 드러날 계기가 주어질 일도 없었다. 처음부터 타자였고 작품 끝까지 주변적 하층적 비주류 존재로 남겨지게 되는 태생적 운명이었다. 중심부로의 진입과 주류적 위상 획득은 상상 너머에 있는 양반계층들만의 특권이고 잔치로 여겨졌다.

<임화정연>에서는 시비 석가월의 인물이 부각되는 반전의 매력이 있다. <임화정연>에서는 시비 석가월의 존재가 빠지면 네 남녀 주인공들의 상호 소통과, 정상적인 남녀 결연과, 원수 대적들로부터의 방어 및 보호가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무척 흥미롭다. 네 남녀 주인공들의 삶의 연결고리의 핵심 인물이 시비 석가월인 것이다. 단지 정소저 개인의 시비이

면서도 네 남녀 주인공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면서 진두지휘 총괄하는 시비 석가월의 다양한 서사적 행위들은, 수백 년의 시공을 뛰어넘는 현재의 다문화 시대에서 독특한 타자로서의 귀감적 여성의 모델이 될 만한 요소들을 담지하고 있음이 흥미롭다.

한편, 남주인공 임규의 지속적인 애정 구애를 받아 첩실이 요구되지만 천정연분임을 알면서도 거부하며 주군 정소저와의 도의를 지키며 남성들의 욕망을 견제하고자 청정하고 탈속적인 독신, 도사로서의 삶으로 지향해 가는 석가월의 행보는 타자적, 주변적, 비주류적 태생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역설적으로 더 깊이 반추하는 타자의식의 내면화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자아의 공간 확보에만 머물지 않고 남녀 주인공들의 정신적 지주 및 타자적 여성들의 공동체를 설립하여 현실의 작은 동그라미를 포용한 탈속적 더 큰 동그라미의 타자적 이상향을 창출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비 석가월의 타자적 존재로서의 특성과 의미는 다문화적 관점에서의 연구 시각을 마련해 주고, 장편 가문소설의 장르적 확장 과 형성 과정의 풍성한 구성 요소들을 제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양반 가문소설로서의 견고한 장르적 특성에도 변화를 부여한 참신한 다문화적 소재로도 잘 활용되고 있어서 소설사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임화정연>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적 관점에서의 가문소설의 연구의 의는 장편 가문소설에 나타난 새로운 타자적 인물 관심의 확대, 가문소설에서 다문화적 인물에 대한 관심이 선도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 타자적 인물에 대한 관심의 확대, 그 역할의 특성과 의미에 대한 탐구, 가문소설 장편화의 형성에 일정 정도 구성 요소로 작용되었다는 점 등등으로 제시 될 수 있다.

다문화적 관점에서의 가문소설 <임화정연>의 타자적 인물 연구는, 조

선조 후기 증폭적으로 양산된 대장편 가문소설의 다문화성 및 장편화의 고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단순히 조선조 양반가문소설로만 읽히던 국내적 관점의 외연을 넓혀 가문소설 연구시각의 확장과 국제화적 콘텐츠로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타자적 인물 ‘시비 석가월’을 통해 주류적, 중심적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통합의 정점을 획득해 가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생동감있게 다양하게 잘 그려낸 가문소설 <임화정연>은 다문화적 관점에서 선도적 시각의 연구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3. <임화정연>에 나타난 ‘석가월’의 타자적 특성과 의미

본 장에서는 <임화정연>에 나타난 ‘석가월’의 타자적 특성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는바, 먼저 시비 석가월의 행적을 순차적 서사 대단락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1. 시비 석가월을 중심으로 한 순차적 서사 대단락

① 광동지방 양민 부친에 의해 백금에 팔려, 용모와 재능이 뛰어난 석가월은 정연양의 시비가 되다

② 정상서 유배시, 정소저가 모친과 사촌 진상문의 합작으로 임규와의 혼약이 파기되고 진상문과의 혼인을 강행되자, 급수비 봉금을 신부로 장속시켜 들여보내고 정소저를 탈신시키다

③ 강서 안찰사로 있는 고모부 주여사를 찾아가게 하나, 찾지 못한 정소저가 화상서 집을 찾아가고, 화상서 부인인 주부인은 화소저의 이창백 핏흔을 피해 남북한 정소저와 약혼시키다/이창백의 핏흔이 지속되자 화

소저는 시비 흥연과 옷을 바꾸어 입고 대신 잡혀가게 하고, 탈신하다

④ 정연낭은 임규와 결연하다/ 화소저는 임규와 결연하다

⑤ 임규가 남북한 가월을 우연히 만나 그 실체를 눈치채고 그 빼어남에 반하다/석가월과 같은 가인이 있으면 현처 전이라도 첩실을 삼고 싶어하다

⑥ 연어사 집에 와 있던 가월은, 진상문이 연소저의 외숙 유시랑을 움직여 연소저를 취하러 하자, 유시랑의 딸 유취랑을 취하게 만든다

⑦ 진상문이 절강으로 화소저를 취하러 내려감을 파악하고 남북으로 진상문과 동행하여 절강으로 가서 화소저를 중매해 주겠다고 하다가 화소저가 병사하였다고 속여 단념시키다

⑧ 정연양과의 혼인 시 임규의 첩으로 가게 되자 왕소랑을 대신 가마에 태워 보내다

⑨ 연어사의 형주 정배 소식을 듣게 되자 진상문의 상경 전에 정, 연소저를 황주 주어사집으로 피신시키다. 화소저도 피화하여 찾아오니 정, 연. 화. 주소저 넷이 자매처럼 지내다

⑩(왕조 바뀔) 림규가 장원급제하고, 정.연.화 3부인과 결혼하고 정소저의 시비 4인으로 애첩을 삼다/임규의 첩이 되려는 순간에 임규의 첩인 양씨의 모함을 받아 속세를 떠나다

⑪ 선계를 찾아가 기린동 청계선생으로부터 도법을 배우다

⑫ 임규의 첩실이 될 운명임을 알고 가묘랑으로 그 자리를 대신케 하다

⑬ 임원수 출정 시 부원수 한왕의 간혹을 파악하고 도복차림의 월봉도사로 자처, 진중의 서기를 자원하다/ 한왕의 임원수 모해 표문을 바꾸어 올림으로써 화를 막고 임원수로 하여금 도리어 입공케 하다

⑭ 여금오가 소씨와 성옥을 데려오게 하여 개과천선시키다

⑮ 청아암으로 피신한 정소저 일행에 대한 여승들의 음행을 막아준다

⑯ 부친 유산을 독점코자 계모 육씨를 축출하고 여동생도 창가에 팔아

넘긴 진준이라는 시골선비를 지혜와 도술로써 혼내고 회개시키다

⑰ 태자가 병으로 위태롭자 양반가의 조씨를 천거하여 천서를 깨닫게 하여 태자의 병을 고치게 하다. 조씨는 천자로부터 도관을 하사받다

⑱ 임규가 지어준 '청원관'이라는 도관에 머물다/ 천자가 조씨에게 하사한 '조천관'이라는 도관에서 조씨와 함께 도사로서 종신하다/ 한왕의 조천관 돌입을 도술로 호되게 물리치다

⑲ 임.화.정.연 네 가문의 주인공들 및 지인들이 다투어 봉헌하며 월봉도사 석가월을 정신적 지주로 추앙하다

이와 같이 순차적 대단락을 정리해 볼 때, 석가월은 20여 차례 이상의 다양한 역할과 활약상을 보이고 있다. 위의 석가월의 서사 대단락의 내용을 행위 단위별로 다시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주인공들의 결연을 성사시키다 ;네 남녀 주인공들의 결연, 즉 임-정, 임-연, 임-화소저 등의 결연 과정에 있어서 각각 악인의 결연 꾀박으로부터 구해 내고, 탈신, 안주시키다가 정상적인 원만한 결연이 성사되도록 이끌어가는 결정적 주체 인물이 되고 있다.

둘째, 악인의 혼인꾀박을 막는 방법의 다양성이다. 시비로 장속시켜 대신 혼례시키거나, 중매해 주겠다고 유도했다가 병사했다고 속여 단념시키거나, 그 악인을 흠모하는 여성을 대신 취하게 속이는 방법 등이다.

셋째, 남북, 도복 등 변복이 자유롭다 ;필요시엔 남북으로 변복하여 적대 인물에 접근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루며, 또한 전장에선 도복차림의 도사로 변복하여 서기 자원하여 남주인공의 위기를 구해주고 오히려 입공시키는 역전의 결과를 창출한다. 즉 남북, 도복 등 변복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상황 역전의 지략이 뛰어나다.

넷째, 능력이 다재하다 ;서기, 표문 작성 등 문식 능력이 다재하며, 집안 총괄 기실역에도 관리능력이 탁월하다.

다섯째, 남녀결연에 관심이 없다 ;남녀 주인공들의 결연 성취에는 헌신적으로 충성하면서도 반면, 자신의 결연은 거부한다. 자신을 흠모하는 남 주인공 임규의 애첩 되는 운명을 거부하여, 왕소랑, 가묘랑 등으로 두 번이나 대신 그 자리에 보내고, 속세를 떠나기도 한다/ 남주인공 임규의 지속적인 애정 표시에도 초연하다.

여섯째, 악인들을 개과천선시키고 승려의 음행을 막아준다.

일곱째, 의술 능력을 발휘하다; 태자의 병 위중함에 조씨에게 천서를 깨우치게 하여 대신 태자의 병을 고치게 하다.

여덟째, 전국적인 지역 이동의 수평적 편력이 중횡무진이며, 이원적 공간의 수직적 이동도 자유롭다/ 경사와 지방, 중심과 외곽, 전장 등 을 자유자재로 순행함은 물론, 천하 유람, 대궐 입성, 아미산 기린동 선계, 초월적 공간의 도관 설립 등 현실계와 선계의 이원론적 공간의 이동 경로를 보인다.

아홉째, 신분 변동을 보이다 ;양민의 딸 - 시비 - 세 차례의 첩실 기회, 거부 - (월봉)도사 등의 순으로 신분이 변동하고 있다.

3.2. 시비 석가월의 타자적 특성과 의미

위의 항목을 토대로 본 항에서는 시비 석가월의 서사적 행적에 나타난 타자적 특성과 그 의미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석가월의 정체성이 타자적 인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정상서가 처음에 정소저의 시비로 석가월을 정할 때의 발언이 그 단초가 된다. 석가월은 출신이 광동 양민의 딸이며 유락한 부친에 의해 팔려 와 정소저의 시비가 된 사연이 정상서에 의해 추론되고 있다.

석가월이 본대 우리집 세전비복이 아니라 제 아버 광동 사람으로 유락하

야 두 딸을 팔거늘 네 부친이 그 특출함을 기특이 녀여 사 두니 석가월은
 룩세이오 석월은 칠세이라 다 용모괴질이 현미함으로 녀아와 갖치 길너 사
 랑함을 골육갓치 하여 녀아의 것을 떠나지 안튼 바이라²⁰⁾

1) **출생** - 주변적 지방 출신에 부모 등의 양육자도 없는 하층계급이 된 시비 석가월은 타자적, 주변적, 비중심적 위치에서 출발한 인물이다. 변방 광동 지역의 양민의 딸로서 가세 유락한 부친에 의해 팔려와 6세에 정소저 시비가 되었다.

2) **구심적 역할** - 석가월은 <입화정연>에서 행동력과 추진력이 가장 뛰어난 인물이다. 벼슬길에 오르거나 전쟁을 치르는 남성인물들보다 행동 반경이 넓고 섭렵하는 대상도 훨씬 많다. 사대부가에 예속된 시비이지만 원래는 양민의 신분이었던 가월은 정소저에 대한 충성뿐 아니라 네 남녀 주인공 및 그 대적자들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며 일 대 다수를 혼자 다 감당하는 뛰어난 능력과 지략과 행동력을 발휘하고 있다. 인성도 활달하고 적극적이며 진솔하며 자존심이 센 인물로 묘사된다. <입화정연>은 표면적 중심인물 4명과 이면적 비주류인물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표면적 중심인물 네 남녀 주인공의 이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류하는 1명의 비주류인물의 역할과 의미는 표면적 네 남녀 주인공들을 모두 포용하고 있다.

주류적, 중심적 인물의 위기 타개 및 결연 성취, 가문 구성원 들의 화합 견인 등 타자로서의 석가월의 역할이 돋보인다는 특성이 있다. 타자, 비주류, 주변적 존재인 가월은 자기의 주군인 정연낭 소저와 그 가문만을 위한 시비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면 자연스럽게 임규의 첩이 되어 승상의 첩으로 신분 상승되고 비주류에서 주류로의 편입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

20) <입화정연> 제27회.

있다. 그럼에도 석가월은 한 가문의 시비 역할에 제한되지 않고 남녀 네 주인공의 각각의 위기를 매번 지혜와 지략과 행동 등으로 실천하여 그들 주인공들의 정신적 중심을 지배하고 있다. 네 남녀 주인공들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시비 가월의 지략과 지시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며 때론 의논하며 모두 깊이 의지한다. 작품 전편을 통하여 진두지휘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도의관 - 석가월이 임규의 간청과 정연양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임규의 첩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주군인 정소저와 한 남성을 섬길 수 없다는 점, 둘째는 임규가 남자로서 호색적인 면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가월의 출가 동기가 되었던, 임규의 첩 양씨의 모함에 따른 여성의 본성적 질투심에 대한 혐오의 점 등 세 가지이다.

그러나 가월의 이러한 결연 거부 이유는 명분론적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 거부 이면에서 가장 명백한 명분은 주군인 정소저와 한 남성을 함께 모실 수 없다는 주군에 대한 그의 도의관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작품 후반에서 더욱 분명하게 표출되는, 청정하고 고산기질의 탈속적인 가월의 성향으로 보아 충분히 짐작가능한 처신이라 하겠다. 남녀 욕망의 색에 대한 혐오의 마음도 겹쳐 있다.

타자적 위치에서 주류, 중심적 위상의 남주인공의 구애를 거부하는 건 일상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타자들의 주된 목표가 중심적 위치로의 진입으로 본다면, 석가월의 이러한 타자적 인물은 특이하며, 이는 그의 유일한 주군에의 도의관에 근거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4) 반윤명론적 결연관 - 청계선생으로부터 임규의 첩이 될 운명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다른 연분있는 여자로 가씨녀를 대신하게 하고 속세를 떠난다. 임규의 호색적 기질에 대한 혐오도 있지만, 그보다 자신이 시비 신분으로 첩이 되는 데 대한 신분적 한계에서 오는 고뇌

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타자적 위치에서 자신의 천연까지 거부하는 강한 반운명론적 결연관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²¹⁾ 시비의 위상에서 국가적 핵심인물인 남주 인공의 첩이 되는 운명을 거부하는 것은 석가월의 독특한 타자적 한 면모라 할 수 있다.

5) **개방적 공간관** - 전국 단위의 지역적 편력 경로는 작품에서 다음과 같은 순으로 제시되고 있다. : 광동 출생- 절강 소흥부(정현) - 강서 - 소이산 청이암 (정소저 일행) - 소흥부(정소저 일행) - 기주 주어사택 가는 도중 정소저 위병으로 경사 - 절강 - 경사 - 황주 주어사집 - 서북 전장 - 절강의 정부 -경사 (4인 혼인) - 천하 유람 -서촉지역 아미산 기린동 - 가묘랑 데리고 경사 - 무창 - 경사 - 신몽을 꾸고 벽운산 청룡동에 도관 - 꿈에 현녀낭당의 지시로 대궐 - 무릉도원같은 도관에 안착 등이다.

변방 광동에서 출생해 전국 각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본래 주어진 바의 역할 이상을 두루 수행하고 있는바, 지방- 경사- 궁궐 - 아미산, 청룡산 등 선계에 이르기까지 속계와 선계, 대궐 출입까지 종횡무진으로 편력하지 않는 곳이 없다.

남성도 아닌, 여성이 이처럼 전국 곳곳을 누비며 편력하는 인물은 고전 소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남주인공이라 할지라도 국가적 사명을 받들어 고위 신분으로 변방의 위기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전국의 일부를 편력하는 경우는 있지만, 여성이 남북으로 때로는 여성 차림으로 편력하는 것이다.

석가월은 변방, 경사, 그리고 대궐이라는 세상적으로 가장 중심적 공간에까지 진입함은 물론, 그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탈속적 중심 공간으로 이동하여 정착하는 담대하고 개방적인 공간관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석가월의 타자적 특성의 하나로 볼 수 있다.

21) 송성욱, 「〈입화정연〉 연작 연구」, 『고전문학연구』 10, 한국고전문학회, 1995, 377쪽.

6) 적대적 정치의 양상 - 작품 속에서 '비자 가월은 비록 하류계급의 신분이나 재모 유여하고 당당하며 내외를 규찰하여 동정을 탐지하고 기세를 운동하여 간인의 흉계를 막으며 주인을 보호하여 보신지책이 신기하니 당시에 희한한 여자라'²²⁾고 묘사되고 있는바, 가월은 하층신분이나 지략이 신기하고 희한한 여자로 인지되고 있다. 가월의 지략은 주로 네 남녀 주인공들 공동의 결연 꾀박자였던 진상문에 대응해 가장 많이 발휘된다.

진상문은, 대표적 혼사장에 악인형 인물이다. 정상서 부인인 진부인의 조카로서, 탐관오리 호상국의 천으로 더욱 위세를 얻어 공, 연공 등을 참소 모략하여 원참시키고, 정.연.화소저를 모두 수중에 넣고자 여러모로 간계 꾀박하여 일가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천하의 대덕군자인 임규까지도 혼사장애인물로 살해코자 자객, 독주 등으로 여러 번 시도하였고 임부에 방화하는 등 간음사특한 악인의 전형적 인물이다. 진상문의 이러한 모든 악행을 예방하고 남복으로 동행하여 희롱하고 허위신부장속으로 속이는 등의 해결사는 오로지 석가월뿐이다. 그렇지만 중국에는 모두 개과천선시키거나 사전에 차단시키든지 하면서 적대자나 악인을 징벌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7) 지향의식 - 석가월은 체재 내적 안주를 거부하는 한편, 체재 내적 부정적 면들을 지적하고 고치는 데 적극적이다. 삶의 시선도 체재 내적보다는 체재 외적으로 열려 있고 개척적, 도전적이다. 삶의 행동 반경도 주류적 인물, 주류 문화에 구애받지 않고 개방적이다. 결연의 천연을 거부하고 세상적 안주를 포기하고 탈속적 세계로 나아가는 처신도 개척적, 도전적인 타자적 모습이다. 세상적 위계질서인 신분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 할뿐 아니라 그 너머의 영원한 정신세계에의 지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네 남녀 주인공들의 혼사장애 위기 때마다 지략으로 구해 내고, 후반부

22) <임화정연> 제70회.

엔 그들 모두의 정신적 지주로까지 승화된 가월이 현실적 부귀에 안주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안착한 공간은 도관인 조천궁이다. 조천궁에 이르기 위해 석가월은 스승을 찾아가 수학하고 수년 간 고초 겪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외적인 힘에 의존하여 신분의 변화나 상승을 꾀하지 않고 석가월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월관이라는 여도사의 이름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달성은 남장으로 변복하여 여성의 실체를 감추고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성의 신분을 밝히고 이루어낸 성취이다. 석가월의 타자적 특성과 그 의미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8) **다양한 대응 지략** - 남북 번복으로 임규와 봉우의 도 나누기, 정소저 대신 시비 장숙으로 혼례 속이기, 남북으로 진상문과 동행하며 화소저를 병사했다고 핑퐁 단념 시키기, 악인 진상문을 골탕 먹이고 회화화 시키기, 도복차림으로 전장에 나아가 서기를 자원하여, 한왕의 모함 문서를 임규 임공 문서로 역전시키기, 본인의 희첩 자리에 다른 여성 추천(왕소랑, 가묘랑)하기, 조씨에게 천서 깨닫게 해 태자 병 고치게 하기 등등의 다양한 대응 지략이 모티프로 제시되고 있다.²³⁾

신분적으로는 하층계급이지만 상층계급에 전혀 종속적, 비하적, 굴욕적 태도는 취하지 않으면서 그 역할에 있어서는 비주류나 타자적 위치를 극복해 있다.

9) **타자의 주체화** - 석가월은 그 많은 사건과 상황들에 직면할 때마다 거의 모두 주체적 결정²⁴⁾, 주체적 실행을 하고 있다. 시비는 대체로 상전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행동하는 위치에 있지만 <임화정연>에서 시비 가

23) 정종대는 석가월의 능력을 '성장하는 서민의 능력'으로 보고 있다. (정종대(1996), 위의 논문, 216쪽)

24) 다만, 임원수가 전장에서 한왕의 음해 위기를 간파했을 때 임원수를 구하기 위해 가월은 정부인과 상의하여 도복으로 전장으로 나아간다.

월은 20여 가지에 이르는 지략, 남북, 속임수, 위장 혼인, 전쟁터에서의 공문 작성 등등의 행위들을 스스로 기획하여 감행한다. 더욱이 여자의 신분으로 전국 각지를 남북으로 돌아다니며 여주인공들을 차례대로 한 곳에 모아 피화, 안둔케 하고 결연 성사에 이르도록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그 역량을 발휘한다. 석가월은 타자의 주체화 면모를 가장 다양하고 독특하게 보여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10) 타자적 주인공의 인물형 창조 - 석가월은 주군 정소서 가문에만 개입하고 있지 않다. 임.화.정.연 네 가문의 위기 때마다 한결같이 구출자가 되어 주는 점도 여타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인물이다. 어떤 개인적인 욕구실현이나 목표 성취를 염두에 두고 하는 목적 지향적 행위도 아니다. 신분 상승, 원하는 남성과의 결연, 구출 후의 보상, 주인공들의 인정과 칭찬 등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석가월의 성향적 특성은 작품 말미의 도관, 도사 등의 정신적, 탈속적 존재로 귀의하여 현세적 인간군 모두를 아우르는 초극적 자연스럽게 귀결되고 있다. 석가월은 타자로서의 개인적, 세사적 욕구 실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일반적 타자의 삶의 지향과 차이가 있으며, 이런 면모에서 타자적 주인공 인물형의 새로운 모형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금이래로 여자-되어 가월갓흔 영웅호걸이 또 어데 잇으리요'(46회) 라는 실질적 영웅 주인공 임규의 감탄 언술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승상 임규와 시비 석가월을 동계에서 평가하고 있는 언술도 있다.

림승상 갓흐니는 당세에 데일이요 석가월 갓흐니는 녀중군자 | 니 남자 중에도 혼치 아니한지라 이런 지모 본받기 어렵도다²⁵⁾

25) <임화정연> 제97회.

11) 탈속적 세계관 -

석량은 박복한 청승이로다 풍류장부의 후정을 배척하고 일신이 부운갓치 떠다니며 암혈에 깃들이기와 격막한 산중에 고초를 달게 녀이니 그 뜻을 진 실로 아지 못하리로다²⁶⁾

청운과 백운이 유별하고 인간과 선가가 슈이하여 소비는 적송자의 보신 지책을 흠양하고 회흠후의 사회자취취함을 가소로이 녀일 뿐이요 구태여 리 세기가하라 함은 아니로소이다²⁷⁾

리는 도사와 가월의 대화에서도 나타나듯이, 가월은 구태여 리세기가하여 속세 즉 현실과의 연분을 완전히 끊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하류천 질이나 맑은 뜻이 고산같거늘 세사를 하직하고 출가수행하여 세상영욕을 피코자 (276면)함을 밝힐 뿐²⁸⁾이라 하였다.

석가월의 탈속적 세계관은 그동안 견지해 오던 주류적 중심적 모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주류적, 중심적, 정신적 공간을 창출한 것이다. 현실 세상 속의 작은 동그라미를, 현실 세상을 포용한 탈속계의 더 큰 동그라미의 공간 질서로 풀어 확장시키고자 하였다는 면에서 독특한 타자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4. <임화정연>의 ‘석가월’을 통해 본

다문화적 면모 및 가문소설의 구성 요소

본 항에서는, 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석가월의 일련의 서사적 행위에

26) <임화정연> 제63회.

27) <임화정연> 제63회.

28) 양민정(1980), 앞의 논문, 88~89쪽.

담지된 다문화적 면모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면모는 가문소설 형성에 어떠한 구성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4.1. '석가월'을 통해 본 다문화적 면모 : 소통과 통합

다문화 개념의 지향점은 '소통과 통합'이라고 보는데, 본 항목에서는 타자적 존재인 석가월이 소통과 통합을 이루어가는 다문화적 면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다양한 희생적 헌신** - 석가월은 네 남녀 주인공의 결연을 각각 성사시켜 모두 한 곳에 모두어 살도록 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통합의 온전한 개념을 모두 성취시키고 있다. 또한 석가월은 흩어져 있는 남녀 주인공들과의 소통과 통합에만 기여한 게 아니라, 적대적 인물들과 대적, 응징하기도 하지만 중국에는 개과천선하도록 계도하는 면면들도 소통과 통합적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적대세력과의 대응 및 정치 과정에서는 본인의 의무와 책임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희생적 헌신을 감수하고 실행하고 있다.

2) **여성공동체 형성** - 석가월은 작품 말미에 임규가 지어준 청원도관, 조씨가 천자로부터 하사받은 조천관 등에서 도사로서 종신한다. 이 공간엔 자식없는 흠어미와 부모없는 여자들, 궁녀들이 재물등을 헌물하며 수없이 모여드니 수십 년 사이에 조천궁 도사 수천이 넘는 이른바 '여성공동체'가 형성된다.²⁹⁾

남성중심적 체제의 최고위층인 천자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타자적 존재로서는 가장 중심부의 위상까지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가월은 조씨와 더불어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받는 제약으로부터 벗

29) 김지연, 「<임화정연>의 서사전략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9, 159쪽 참조.

어나기 위해, 현세에서의 탈속을 꿈꾸고 또 실천적으로 탈속 공간을 확보 하기에 이르고 있다. 천자가 지어준 탈속 공간에서 현실세계와는 거리를 두고, 남성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불우한 여성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여성중심적 공간을 실현하고 있다.³⁰⁾

이처럼 조씨를 중심으로 석가월, 궁녀들, 어려운 여성들이 기거하는 여성중심적 공간은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소통과 통합적 여성공동체의 한 모형의 제시로도 볼 수 있다.³¹⁾

그동안 견지해 오던 주류적 중심적 모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주류적, 중심적, 정신적 공간을 창출한 것이다. 현실 세상 속의 작은 동그라미를, 현실 세상을 포용한 탈속계의 더 큰 동그라미의 공간 질서로 품어 확장시키고자 하였다는 면에서 다

문화적 소통과 통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인, 그리고 그러한 주변인과 관계를 맺으며 솔직한 자기감정을 드러내는 상층 사람들의 태도에 주목하게 된다.³²⁾

3) 분향 귀소본능 - 작품 말미에서 석가월이 임규의 첩이 되고, 자신이 성사시켜 준 세 여주인공들과 처첩 관계가 되어 부귀영화를 함께 누릴 수 있음에도 이를 모두 거부한다. 모두 내려놓고 탈속 공간인 또다른 세계인 도관을 창설하여 도사로 자처하며 기존의 주인공들 및 가문의 비자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탈속적 삶을 추구하는 모습은, 분향을 그리워하는 타자적 귀소본능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다문화 이주민들의 분향 귀소본능이 함의되었다고 본다.

30) 김지연(2009), 위의 논문, 156쪽 참조

31) 한길연은 이를 가부장적 남성 질서에서 벗어나 여성의 독자적인 삶을 안위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보고 있다. (한길연(2002), 위의 논문, 339~340쪽.)

실제로 현 다문화 사회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소통 공간인 단체들이 여럿 있다.

32) 허순우(2013), 위의 논문, 155쪽.

4) **이상향 창설** - 변방 양민 출신 시비 석가월은 탁월한 지략, 행동실천으로 자신의 주변적, 타자적 현실을 극복해가지만 중국적으로는 그 극복의 결실에 안주하지 않고 조씨와 더불어 그 너머 이상향의 공간을 창출해 낸다. 모든 남녀 주인공들 및 주변의 지인들이 다투어가며 이 도관에 풍족한 예물을 바치고 정신적 존재로 추앙하는 단계에까지 승화되는 것이다. 즉 석가월 중심으로 보았을 때 가정 - 사회 - 도관으로 거주 공간의 확장과 함께, 시비 - 첩 - 도사로 신분적 변화의 확장도 이루어진다. 또한 지방 광동에서부터 십수 지역의 지방과 경사를 오르내리다가 궁궐에도 들어가고 최종적으로는 도관에 안착하는 등 순회 공간의 주체적 확장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타자적 삶의 행보는 모든 남녀주인공들까지 포용하는 타자적 이상향의 창설로 통합점을 획득하고 있다.

5) **타자적 위상의 한계 극복** - <임화정연>에서의 탈속이란 단순히 세상과의 단절의 의미가 아니라 타자적 여성 중심의 새로운 정신적 쉼터로서의 공간 형성. 타자적 공동체의 위상, 정체성 등의 획득한 것이다. 동시에 도관은 타자적 여성공동체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모든 남녀 주인공들의 정신적 등지의 역할도 하고 있어서 세상적 모든 질서를 균등하게 포용하는 소통과 통합의 장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즉 대궐에서의 임규 중심의 네 남녀 주인공들의 부귀영화의 현세적 삶이 작은 동그라미 안에 모두 포용된다면 도관은 현세적, 정신적 삶을 더 큰 동그라미로 포용하는 소통, 통합적 역할을 하고 있다.³³⁾

이와 같이 시비 석가월 서사적 행위 양상들은 이주민의 외부적, 타자적, 비주류적, 주변적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는 다문화적 인물로서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들어내고 있다. 시비 석가월의 타자적 인물 형상화는 현 사

33) 한길연은 이러한 결말을 '상승적 결말'로 규정하고 있다. (한길연(2002), 위의 논문, 349쪽.)

회의 소설 독법 코드로 볼 때 소통과 통합 지향의 다문화 여성의 대표적 표상으로 캐릭터화 할 수 있으며, 독자들의 몰입과 호응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인물로 주목하게 된다.

4.2. 다문화적 면모가 가문소설 〈임화정연〉의 구성에 끼친 영향

그럼, 석가월의 다문화적 면모가 가문소설의 구성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항에서는 앞 항목에서 분석된 ‘석가월’의 다문화적 면모에만 기대어 논의하고자 한다.

1) 타자적 인물의 서사 행위의 다양성 및 분량의 장편화 - 작품 처음부터 말미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으로써 장편화에 기여하고 있다. 작품 내에서의 네 남녀 주인공 중심의 사건 진행의 연속성 및 네 남녀 주인공들의 보호를 위한 주거 이동의 다양한 지역 경로 이동의 연결고리는 모두 석가월에 의해 가능하고 있다. 즉 작품의 사건 및 장소 이동의 연속성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석가월에 의해 계획되고 혼사장애가 제거되고 석가월에 의해 거처가 이동되고 석가월에 의해 피화, 합체되고 석가월에 의해 네 남녀 주인공의 결연이 완결점을 이룬다.

2) 네 남녀 혼사장애극복담의 구조적 반복에 중심 역할 - 네 가문 남녀 주인공의 결연 성취에 모두 관여하여 복수 남녀 결연담으로 구조적 반복의 장편화하고 있다. : 시비 석가월의 입, 화, 정, 연 네 가문의 남녀 주인공들을 혼인핍박과 모해의 위기에서 구해 낼 뿐 아니라 네 남녀의 결연을 성사시켜 줌으로써 반복 사건과 반복 구조와 인물의 복수 등장 등의 구성요건인 장편 대하소설로 갈 수 있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석가월이 아니었으면 네 남녀 결연담은 성사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더불어, 주목하게 되는 바는, 석가월은 주군 정소서 가문에만 개입하고 있지 않다

는 점이다. 임.화.정.연 네 가문의 위기 때마다 자기 일처럼 구출자가 되어 주는 점도 여타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인물이다.

<임화정연>이 대하 가문소설로 복잡해지고 장편화될 수 있는 것은 네 남녀 주인공의 결연담이고 이들의 결연의 혼사장애극복담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인물은 바로 석가월에 의해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작품 말미에서 이들 네 남녀 주인공들을 하나의 정신적 가치로 묶어주는 위치를 확보하여 정신적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도 석가월이다. 즉 네 남녀 주인공들은 세사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에 머물지 않고 한 때 시비였던 석가월 월봉도사가 만들어낸 청원도관에 정신적인 가치를 동시에 모으고 있는 것이다.

3) 다재다능한 능력 발휘 - 행동 양태, 도술, 지혜 등 한 인물의 다재다능한 능력 발휘의 다양성이 가문소설의 인물 서술 장편화에 기여하고 있다. 여러 차례 납장으로 세상 밖을 경험, 모사가 되어 전장에 투입, 거짓말로 진상문을 속이고 임규와 화빙아를 위기에서 구하기도 하는 등 수많은 기담이 그의 활약상을 증명³⁴⁾한다. 가월의 당찬 성격, 강한 자의식, 탁월한 지혜, 다양한 변신, 혼인 속임수 전략, 과감한 지역 이동과 실행 등의 빈번한 반복은 가문소설 장편화의 구성 요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4) 공간의 수평적·수직적 확장 - 가문소설의 배경 및 장소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앞서서도 제시한 바 있듯이 석가월은 네 가문 구성원들의 주역 행동과로서 필요할 때마다 남북으로 지역 방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지방과 경사, 서축 아미산 기린동 선계 등 현실계와 초월계를 자유자재로 수시로 왕래하며, 또 대궐에도 출입하게 되고 중국에는 탈속공간에 안착하는 등 석가월의 행보가 그려내는 다양한 공간적 확보와 경로 이동은 가문소설 장편화의 구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네 가문 구성원들

34) 김지연(2009), 위의 논문, 154~155쪽.

을 위한 전국적 지역 순회이므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5) 타자적 여성 의식의 확장 - 석가월의 타자적 여성 의식은 주변적, 비주류적, 타자적 위치에서 중심적, 주류적 위치로 진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며 다음 단계의 정신적, 초월적 지향의 세계관을 보임으로써 여성 의식의 확장을 보인다. 이는 여타의 여성 영웅 소설에서처럼 자신만의 자아 실현을 위해 한시적으로 남북하여 영웅성을 발휘하다가 다시 여성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여성적 삶의 질곡을 겪게 되는 영웅 여성의 여성 의식과는 다르다. 여성 영웅 소설의 여성은 양반 가문 여성의 주류적 자아 실현적 영웅 추구임에 반해, <임화정연>의 석가월은 비주류 존재의 이타적, 희생적 여성 의식의 소유자로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석가월을 마음에 두고 있고 황제의 사훈 교지까지도 확보하고 있던 승상 임규이지만 그의 깊은 애정을 털어내게 된 것도 가월의 결단을 존중해 준 연유에서이다. 출가를 결심하고 길지를 택해 도관을 세우려 하자 모두 진심으로 기뻐하며 탄복하고, 가월에게 ‘닷토아 금백죽물을 후히 보내’기까지 한다. 즉 석가월의 여성 의식은 주류층의 공감과 협조와 감동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다. 세속 공간에 살면서도 도관이라는 또다른 차원의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석가월의 타자적 면모는 소통과 화합의 정점을 이룬다. 이러한 타자적 여성 의식의 확장이 작품의 개방적 결말로 구성되면서 가문 소설 장편화의 기반을 넓히고 있다.

6) 이중적 결연관 - 남녀의 결연을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윤리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대다수 한글 장편 소설의 의식적 성향이다. 석가월과 조옥연의 서사에서는 남녀의 결연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루었다. 혼인을 하지 않는 독신 여성의 삶을 청정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묘사했다. 이는 한글 장편에서 보기 드문 참신한 서사 전개이자 남녀의 결연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독자의 관심을 끌었고, 결과적으로

장편의 전승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³⁵⁾ 후반부의 남녀 결연 문제는 당시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던 소재이다. 정절 이념을 새롭게 해석하고 독신여성의 모습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형상화하는 등 다른 작품에서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색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보편적 남녀 결연관의 이중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7) 남주인공의 타자적 애정관 - 임규는 석가월에 대한 남다른 연정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정연남도 여러 차례 꾸짖음과 당부를 반복하며 임규의 첩이 될 것을 종용해 왔다. 그럼에도 임규가 작품 말미에서 석가월을 희첩의 운명에서 자유롭게 해 준 것은 가월의 성향과 소망을 인정해 주기로 한 데서였다. 석가월이 부귀공명을 좇지 않았고, 여러 번 남북으로 도로유리의 위기에 봉착하였음에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진실성과 청정한 자질이 인정되어 그의 출가가 허락된 것이다. 하늘은 석가월의 소망대로 임규의 첩이 될 운명을 해제해 주었지만 임규의 3처 7회의 처궁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내린다. 이 대안으로 가월은 자기 대신으로 가묘랑을 첩으로 추천한다. 가월은 가묘랑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나 가묘랑을 데리고 돌아오며, 가월이 도관에 정착하여 도사로 자처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여성으로서의 가월을 포기하게 된다.

부귀공명의 정점에서 있는 승상 임규가 여러 차례 간곡하게 가월을 첩으로 삼고자 욕망하나 가월은 매번 피하거나 거부하며 결국은 임규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긴 애정 스토리는 가문소설의 흥미로운 구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주자의 타자에 대한 애정 요구 및 그에 대한 거절의 지속적 전개는 가문소설의 보편적 남녀 결연구조에 역행하는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여기에서 승상 임규가 타자 석가월에 대한 애정 표현에 있어서 한번도 강압성을 띠지 않았다는 점도 상층의 하층에 대한 수직적 애정

35) 김동욱, 「<임화정연> 연작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6, 131~132쪽.

관계에 특이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8) **타자적 리더십 창조** - <임화정연>은 석가월이라는 매력적인 타자적 여성 인물을 창조해 냈다. 수많은 변신과 변장을 통해 여성 독자들에게 대리만족 뿐 아니라, 거짓말과 지략을 악인의 꾀방 방지,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에는 박진감이 넘치기도 하고³⁶⁾, 교만하고 영리한 악인이 속아 회회화되는 모습, 과감하게 전장에 도복차림으로 자원하여 서기로 역할하는 담대함과 글쓰기 능력 등은, 전통 여성영웅소설이 아니면서도 남주인공 입구에 의해 ‘영웅호걸’로 칭함을 받을 만큼 영웅적 면모에 손색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입구를 중심으로 한 3처 7회의 여성들이 갈등이나 시기, 질투, 반목 없이 모두 한결같은 자매애의 화합된 모습으로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결정적 역할도 가월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석가월은 새로운 환경에 도전적으로 적응해 가며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인물들의 단합을 성취시키는 타자적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소통과 통합의 모델적 인물로 제시될 수 있다.

5. 맺음말

<임화정연> 즉 <사성기봉>소설은 조선조 양반가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가문소설이다. 본고는 <임화정연>에서 작품을 관류하면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하는 시비 ‘석가월’의 정체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작금의 다문화 사회에 상응하여 조선조 고전소설 속의 인물을 바라보는 연구 시각과 방법도 전환, 확장될 필요가 있다. 주로 정주자적, 주류적 인물 중심에서 비주류, 주변적, 타자적 존재에 대한 관심의 확대가 요구되었다.

36) 김지연(2009), 위의 논문, 158쪽.

본고는 이러한 시의적 주체의식을 갖고 가문소설 <임화정연>에 나타난 '시비 석가월'의 인물에 관한 시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고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다문화적 관점에서의 가문소설 연구의의를 논하였다.

3장에서는 <임화정연>에 나타난 타자적 인물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 살펴 보았다. 먼저, 시비 석가월을 중심으로 한 서사 대단락을 정리하였고, 다음으로는, 시비 석가월의 타자적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임화정연>에서 '석가월'을 통해 본 다문화적 면모 및 다문화적 면모가 가문소설의 형성에 어떤 구성요소로 작용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석가월의 일련의 서사적 행위는, 타자적 인물이 주류적, 중심적 존재로 구심화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주류적, 중심적 가문 구성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통과 통합의 정점을 일구어낸 석가월은 다문화적 관점에서 다문화적 면모를 지닌 인물의 한 전형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석가월을 통해 본 다문화적 요소가 가문소설 <임화정연>의 형성에 어떠한 구성 요소로 작용했는지도 살펴 보았다.

본고는, <임화정연>을 다문화적 관점에서 시도해 보았다는 점과, '석가월'에 대한 인물 연구가 기존의 단편적, 부분적, 소략한 비중이었던 데 비해, 구체적으로 처음 논의된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석가월의 타자적 인물로서의 다문화적 면모를 드러냄에 있어, 조선시대 여타 소설에서의 유사한 인물과의 비교 및 대조가 이루어졌다면 논리의 설득력을 더 확보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고에서는 함께 논의하지 못한 한계점과 아쉬움이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별도의 논의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참고문헌

- 권순희, 박상준 외,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교육과학사, 2010, 60~91쪽.
- 김경미, 『타자의 서사, - 타자화의 서사, <홍길동전>』,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1, 185~211쪽.
- 김동욱, 『<임화정연>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6, 1~179쪽.
- 김지연, 『<임화정연>의 서사전략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9, 1~202쪽.
- 송성욱, 『<임화정연> 연작 연구』, 『고전문학연구』 10, 한국고전문학회, 1995, 349~387쪽.
- 송성욱, 『필사본 <임화정연> 72책본 텍스트 연구 - 구활자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6, 서울대 규장각, 2004, 38~65쪽.
- 신순식 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공동체, 2010, 1~13쪽.
- 양민정, 『<임화정연>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0, 73~97쪽.
- 양민정, 『기봉류소설 연구』, 이화문화사, 1989, 97~125쪽.
- 양민정, 『다문화적 관점에서 <구운몽>을 통해 본 소통과 화합 방식』, 『외국문학연구』 61, 한국외국어대 외국문학연구소, 2016, 207~235쪽.
- 엄기주, 『<임화정연> 연작 연구』, 『국어국문학』 116, 1996, 205~225쪽.
- 이현정, 『미래의 우리를 만드는 다문화 교안』, 이담, 2011, 1~360쪽
- 정규복, 『“제일기연”에 대하여』, 『중국학논총』 1, 1984, 1~80쪽
- 정선희, 『소선 태자의 이방 체험으로 본 <육미당기>』, 『한국고전연구』 2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205~230쪽.
- 정중대, 『<임화정연>과 가족주의의 확장』, 『국어교육』 92, 한국어교육학회, 1996, 202~229쪽.
- 조광국, 『<임화정연>에 나타난 가문연대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22, 2002, 163~188쪽.
- 조광국, 『다중결연구조의 양상과 의미』, 『국어교육』 121, 2006, 501~524쪽.
- 최수현, 『<유씨삼대록> 속 이민족 형성의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2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102~120쪽.
- 패멀라 A. 헤이스 지음, 방기연 옮김, 『문화적 다양성과 소통하기』, 한울, 2010, 82~110쪽.
- 한길연, 『탈속 공간을 지향하는 여성영웅들에 관한 소고 - <화정선행록>의 ‘충효

혜'와 <임화정연>의 '석가월'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7, 국문학회, 2002, 326~355쪽.

허순우, 『<임화정연> 소재 '첩' 관련 서사의 양상과 의미』, 『어문논집』 67, 민족어문학회, 2013, 153~183쪽.

Bron B. Ingoldsby, Suzanna D. Smith 지음, 천혜정, 강진경 외 옮김, 『다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의 가족』, 시그마프레스, 2009, 1~590쪽.

ABSTRACT

The Contemporary Review of Sukgawol's Personality in
<Imhwajeongyon> from a Multicultural Point of View

Yang, Min-jung

<Imhwajeongyon>, or <Sasonggibong> is a family novel set in the Choseon Dynasty. This paper was given attention to the outstanding identity of female servant 'Sukgawol' as it moved on from <Imhwajeongyon>. Research perspectives and methods of looking at the characters in Choseon's classical novels need to be changed and expanded in response to the recent multicultural society. Expanding interest in non-mainstream, peripheral and othered existence was required, mainly in the center of the settled, mainstream characters.

With this subject reflecting the times, I conducted a contemporary study on the character of "Sukgawol" in the family novel A First, we looked at the meaning of the study of family novels from a multicultural point of view, and secondly, we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Sukgawol, as an othered central figure. Third, the multicultural aspects viewed through "<Imhwajeongyon>" in "Sukgawol" were examined to see which components played a role in the formation of family novels.

A series of epic acts of Sukgawol ultimately resulted in communication and harmony among members of the mainstream and central family, as the othered character was centered on the mainstream and central existence. Sakyamuni's Birthday, which marks the height of communication and integration, is meaningful in that it offers a model of a multicultural character from a multicultural perspective.

The present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tried <Imhwajeongyon> from a multicultural point of view whereas the earlier character study of 'Sukgawol' was piecemeal, partial and insufficient.

Key Words <Imhwajeongyon>, Multicultural features, othered characters, a female servant Suktawol, communication and integration

논문투고일 : 2019.01.15

심사완료일 : 2019.02.22

게재확정일 : 2019.02.23